

SNS 매거진

# 뷰티플 데 이



제26호  
2018년  
9월





03p COVER STORY  
아름다운 선거,  
사진으로 말하다

04p 기획연재  
영화 속 선거 ②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2017)>,  
<신과 함께>의 강림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06p 파워 인터뷰  
축구선수 이용



08p 웹툰  
세상을 가꾸는 힘

10p 특별기고  
간단하지만 제대로 맛내는  
추석 음식

12p 선거 따라잡기  
기부행위 상시 제한

14p 선거, 심장어택 ②  
독재자를 이긴 정치 신인,  
감비아의 첫 평화적 정권교체

16p 위탁선거  
당신의 대표자에게  
K-Voting하세요!  
- 온라인 투표 서비스

18p 여행지 소개  
이곳에 가면 가족애가 쑥쑥  
추석 가족여행지 3곳

20p 정치후원 꿀Tip  
알아봤다! 정치후원금

22p 기획기사  
<서울의 선거 풍경>展,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역사



24p 선거 따라잡기  
선거비용이 왜 그럴까

26p 한국선거방송

27p 독자마당  
댓글을 만나다

# 아름다운 선거, 사진으로 말하다



전영한



송원영



이호인



공형주



안상은



최기호



발행일 2018. 09. 01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기획 홍보과  
구독문의 02-503-2792  
ygh978@korea.kr

Beautifulday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eautifulday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물 중  
'읽고 볼만한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한 사회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지향하면서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그렇지 않다. '선거'는 오히려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라도 숨어내는 필터링의 역할을 하는 이벤트다.

##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2017)>, <신과 함께>의 강림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현** 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다. 좋은 과거로 딱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흑역사가 있고, 또 그 중 많은 사람에게서는 잘못을 저지른 과거가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모른채 지내는 사람도 있다. 1편에 이어 2편까지 각각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는 죽고난 후에 용서를 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죄를 용서받으면 그들은 환생의 기회를 얻는다. 그런데 이때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바로 그들의 기구한 사연이다.

1편 <신과 함께 : 죄와 벌>은 방금 사망한 자홍(차태현)이 49일 동안 7편의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의 남다른 사연을 보여준다. 주호민 작가의 원작 속 자홍은 평범하게 살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고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화 속 자홍에게는 죄가 있다. 장애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과 힘겹게 살아가던 중, 가정환경을 비관해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집을 나가 가족과 먼 발치에 떨어져 그날의 일을 속죄하며 살았던 또 다른 사연이 보여진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엄마가 자식의 죽음에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이 함께 있다. 비정하고 슬픈 가족사와 모성의 드라마, 그리고 CG로 구현한 저승세계의 풍경과 법정드라마적인 긴장감이 더해져 1,400만명이 넘는 관객이 <죄와 벌>의 사연에 눈물을 흘렸다.

2편인 <인과 연>은 1편과는 다른 방향의 이야기다. 강림(하정우)과 해원(주지훈), 덕춘(김향기)은 전편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자홍의 동생 수홍(김동욱)의 환생을 위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2편에서

수홍에 대한 재판은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염라대왕(이정재)은 원구가 된 수홍에 대한 재판을 여는 조건으로 성주신(마동석)이 지키고 있는 허춘삼 노인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임무를 내린다. 그런데 성주신은 강림과 해원, 덕춘이 사망할 당시 그들을 저승으로 데려간 차사였다. 성주신은 이들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인과 연>은 성주신이 들려주는 저승삼차사의 과거사와 강림이 수홍에게 들려주는 자신의 과거를 번갈아 보여주며 이야기를 끌고간다. 역시나 이들에게도 1편의 자홍 못지 않은 한(恨) 많은 사연이 있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슬픈 사연을 드러내는 <신과 함께>는 결국 누구든 제대로 알고보면 나쁜 사람은 없다는 낭만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영화다. 2편에서 드러나는 저승삼차사의 사연은 1편의 자홍과 맥락은 다르지만 정서가 같다. 해원맥은 고려시대 북방경계지역을 지배하다시피 한 장수 '하안 삶'으로서 수많은 여진족을 죽였고, 이후 고아들을 보살피는 여진족 소녀 덕춘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역시 고려의 장수이자, 해원맥과는 아버지에 의해 형제로 엮인 강림은 여진족을 척결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와 해원맥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들을 죽였고, 자신도 죽임을 당한다. 이때 염라대왕은 해원맥과 덕춘의 기억을 지우고 강림에게만 기억을 남기면서 앞으로 천년 동안 49명의 귀인을 환생 시키라고 명한다. 강림 역시 천년 동안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용서를 빈 셈이다. 그리고 영화는 서로를 죽일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연, 특히 강림의 과거를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맥락으로 보여준다. 성주신이 말하는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처럼 말이다.

"나쁜 사람은 없어.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신과 함께> 시리즈의 메시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알고보면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건 세상을 살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그를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100% 동의할 수 없었다. 나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혹을 견디고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 그리고 나쁜 상황에서 나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 공존하는 게 세상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들 중 누구를 지향해야 하는가.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지향하면서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는 사회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정치인'에게 대입해보면 조금 더 까다로워 질 것이다. 언제나 옳고 바른 선택을 해온 후보와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했던 후보가 있다고 치자. 나쁜 선택을 한 후보의 사연은 기구할 대로 기구하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선거에 나왔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나쁜 선택을 한 그가 제대로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면? <신과 함께>에서 죄를 지은 인물들이 용서를 받는 과정에는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있다. 1편의 자홍은 어머니를 향한 죄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그의 동생 수홍은 현몽을 통해 어머니의 꿈에 나타난다. 2편에서도 강림은 염라대왕 앞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해원맥과 덕춘에게는 직접 용서

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강림의 속마음을 알게된 해원맥과 덕춘이 스스로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뿐이다. 그래도 영화이니까, 영화를 본 관객은 함께 강림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어떻게? 과거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한 후보가 있는데, 그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도 없다면? 피해자도 용서하지 못한 그를 유권자들이 투표로 용서해도 되는 걸까?

한 사회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지향하면서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그렇지 않다. '선거'는 오히려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라도 숨어내는 필터링의 역할을 하는 이벤트다. 또 그가 자신의 나쁜 선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에게 속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만큼 선거는 '신과 함께'가 보여주는 살인, 내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등 7개 지옥에서 펼쳐지는 재판과 같아 보인다. 후보로 나선 정치인의 과거와 현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과거의 잘못까지 파헤친 후 그의 현재를 판단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뉘우친다고 해서 꼭 선거에서 당선되리라는 법은 없다. 나만 해도 강림과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나온다면, 선뜻 그를 뽑을 수 없을 것 같다. 먼저 강림보다는 더 올바른 선택을 해온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런데 강림보다 더 나쁜 선택을 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제서야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결정하는 입장으로 강림에게 표를 던질 것 같다. 적어도 영화에서 그는 1천년 동안 속죄를 하며 살았으니까.

강병진 에디터  
영화저널리스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 에디터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태극전사 축구선수 이용을 만나다!

**지**난 6월 18일, 첫 월드컵 경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쉽게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독일을 2:0으로 이기면서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다시 한번 뜨겁게 감탄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도 그 열기는 정말 대단했죠?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수많은 태극전사 중 수비수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이용 선수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요즘 근황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북현대 수비수 No.2 이용입니다.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네요. 월드컵에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소속팀에 돌아와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와 그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독일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 도중에 부상 아닌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하며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기 때문이죠. 아마 앞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축구를 보면서 응원했던 국민들도 그 경기를 마음 속에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아쉽게도 16강에 오르지 못했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심정은 어땠나요?**

사실 지금도 많이 아쉬워요. 독일전 승리 후 이전의 경기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곤 했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때의 아쉬움을 털어 내고 싶었던 대회였고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임했기에, 또 제 현재 나이로 다음 월드컵까지 기억이 어렵기에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 TV방송에서 탈장 슬럼프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마 축구선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탈장 슬럼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팀의 좋은 치료사인 지우반의 도움이 컸어요.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였던 상태에서 지우반의 조언으로 독일에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뛰어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축구선수의 꿈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축구선수가 되고싶다'고 다짐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어릴 적 정식으로 축구를 하기 전부터 항상 축구를 하면서 놀았고 다른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축구만 바라봤었죠. 축구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꿈나무에게 한마디 한다면?**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축구선수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프로선수로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쉬운 길은 없다. 쉬운 길을 찾기보다는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의지를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파이팅!

**이용 선수가 생각하기에 축구와 선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축구와 선거 모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승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둘 다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 또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용 선수의 활동 계획과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부탁 드려요.**

월드컵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K리그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북 현대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준 이용 선수 감사합니다. 빈틈 없는 철벽 방어로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이용 축구선수  
제21회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  
전북 현대 모터스  
제20회 브라질 월드컵 국가대표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축구선수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프로선수로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쉬운 길은 없다. 쉬운 길을 찾기보다는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의지를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파이팅!



# 꽃가족

이상선/국중록

## 세상을 바꾸는 힘



# 간단하지만 제대로 맛내는 추석 음식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하는 민족 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많고 먹을 게 별로 없던 과거에는 백적지근하게 추석 상을 차리는 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요즘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시대에는 간단하고 건강하게 차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추석 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인스턴트 시대에 우리 고유의 한식을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 먹으면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되겠죠?

## 송편

추석에 빠지지 않은 음식 하나가 바로 송편이죠. 우리나라 음식에는 '복쌈'의 문화가 있는데요. '복쌈'이란 '복을 싸서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만두를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는 거지요. 요즘 많이들 사서 드시는데 사실 떡 만들기가 누워서 떡 먹기만큼 무척 쉽습니다. 송편은 복을 주는 의미있는 음식인 만큼 가족들과 모여 앉아 만들면 더 없이 좋은 시간이 될 거 같습니다.

## 송편 만드는 레시피

- 각각의 색을 들인 멥쌀가루는 끓는 물로 익반죽 하여 오래 치댄다.
- 찜에 물을 붓고 센 불에 9분 정도 올려 김이 오르면, 젖은 면보를 깔고 거피पाल을 넣어 25분정도 찜 후, 꺼내어 소금을 넣고 찜어 체에 내린 다음 꿀과 계핏가루를 넣고 섞는다.
- 쌀가루 반죽을 15g씩 떼어, 소를 넣고 오므려 송편 모양을 만든다.
- 찜기에 물을 붓고 센 불에 9분 정도 올려 김이 오르면 젖은 면보를 깔고 솔잎을 고루 퍼서 송편을 가지런히 놓는다. 다시 솔잎과 송편을 켜켜로 엮고, 센 불에서 20분 정도 찜다.
- 찜진 떡은 꺼내어 물에 재빨리 담갔다가 건져서 솔잎을 떼어 내고 참기름을 바른다.

### 꼭 알아야 할 송편 TIP

- ※ 물이 끓은 후 송편 담은 찜기를 올려야 잘 익는다.
- ※ 젖은 면포를 밑에 깔아야 떡이 달라붙지 않고 마른 면포를 위에 깔아야 수증기로 생긴 물이 떡에 떨어지지 않는다.



### 꼭 알아야 할 토란국 TIP

- ※ 토란은 모양이 둥글고 단단한 것이 좋으며, 진흙이 묻은 것이 씻은 것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맛의 변화도 적다.
- ※ 토란에는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을 깎은 후 쌀뜨물에 담가 삶아 사용한다. 아린 맛을 없애는 비결이기도 하다.

## 토란국

토란은 추석과 비슷한 시기인 9~10월이 제철인데요. 땅속의 달걀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완전식품입니다. 전통 민화를 보면 십장생과 함께 토란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건강한 음식이니 추석에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 토란국 만드는 레시피

- 토란은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비닐장갑을 끼고 껍질을 벗긴다. 크기가 큰 것은 2~4 등분 한다. 쌀뜨물에 10분간 담가 두었다가 끓는 소금물에 넣고 살짝 삶는다.
- 두부는 사방 3cm크기로 납작하게 썰고 대파는 송송 썬다.
- 냄비에 쇠고기, 무, 다시마를 넣고 끓인다.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지고 한소끔 끓인다. 체에 걸러 국물은 따로 두고 쇠고기는 한 김 식혀 잘게 찢는다.
- 냄비에 국물을 넣고 끓인다. 끓어오르면 토란, 쇠고기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 파, 마늘, 두부를 넣고 끓이다가 간장, 소금으로 간한다.



### 꼭 알아야 할 잡채 TIP

- ※ 잡채에 들어가는 고기는 소고기가 좋는데,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많은 목심 또는 안심이 좋다.
- ※ 당면을 불지 않게 하려면 실저마차 식용유와 참기름을 1:1로 섞어 면을 먼저 무쳐 준다.

## 잡채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음식이 잡채이죠. 속설에 의하면 왕이 잡채에 들어간 재료 상태를 보고 국민들의 형편을 어렵짐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재료를 모아 볶는다고 해서 잡채라고 부르는데요. 잡채는 이름처럼 지역마다 집안마다 쓰는 재료가 다양해 더없이 맛있는 음식이랍니다.

## 잡채 만드는 레시피

- 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두르고 쇠고기,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넣고 중불에서 각각 2분정도 볶는다.
- 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두르고, 오이와 당근을 넣고 센 불에서 각각 30초 정도 볶는다. 도라지와 양파는 중불에서 각각 2분 정도 볶는다.
- 끓는 물에 소금과 숙주를 넣고 2분 정도 데치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고 양념한다.
- 끓는 물에 당면을 넣고 8분 정도 삶아 건져 길이 20cm 정도로 자른 다음 양념장을 넣고 무친다.
- 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당면을 넣고 2분 정도 볶는다.



임성근 요리연구가  
한식문화교류협회 표창 / 세계조리사연맹 아시아회장 표창  
한식대접3, 알토란 등 방송 출연

가족, 친척들과 함께 맛있는 추석 음식을 만들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1**

얼마전에 동네아는 형님이 밥을 산대서 나갔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왜? 밥 얻어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게.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덕분에 나가자마자 더치페이하고 왔어요.

기부행위는 뭐든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3**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4**

아무튼 나 큰일날 뻔 했더니깐요.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을 기부받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무려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대요.

3천만원... 후덜덜... 혹시 자수하면 뭐 없나요?

**6**

똥!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들은 상시제한!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제보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요.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

**5**

다행히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회원님 혹시...?!

성악...

안나, 미리 미리 알아두려고 하하하!! 뭐, 선거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더 더위...

**7**

왜 대박! 회장님, 다음 번에 위반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신고하게!

초공초공

뽕

뭐라구요? 이씨랑, 스파이였네!

그림: 박슬기

**기부행위 상시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연락주세요!

# 독재자를 이긴 정치 신인, 감비아의 첫 평화적 정권교체

김형민 PD  
SBS CNBC PD  
역사 관련 SNS & 블로그 '산하의 오역'  
'그들이 살았던 오늘' 저자

선거, 심정어택



**1952년** 5월 26일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돼 있던 당시 제도 하에서 대통령에 재선될 희망이 없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와중에 야당 의원들이 탄 버스를 통째로 끌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영국의 더 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냉소를 퍼부었다. 그러나 더 타임스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쓰레기통에서는 장미가 피어났고 적어도 절차적 면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크게 꿀릴 것이 없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더 타임스 류의 냉소를 감수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아프리카 대륙,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자크 시라크는 “아프리카에 민주주의는 사치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아프리카는 의외로 크다. 아프리카 대륙의 넓이는 자그마치 약 3천만 제곱킬로미터이다. 중국, 미국, 인도와 멕시코 등 내로라하는 영토 대국에 페루, 프랑스 등 18개국을 합친 면적보다 크다. 이 어마어마한 땅에 54개국도 자리 잡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민주주의의 선진국은 찾아보기 힘들다. 살인마로 유명한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나 대통령이 됐다가 스스로 황제가 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카사처럼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언뜻 떠오르지만, 그 외에도 수십 년 씩 장기집권한 독재자는 흔하고 무시로 벌어지는 군사 쿠데타나 내란 때문에 평온한 정정(政情)을 구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면적 1만km<sup>2</sup>의 소국

감비아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감비아의 초기 역사는 초대 대통령 다우다 자와라의 장기집권으로 점철돼 있다. 1970년 집권한 자와라는 무려 1994년까지 권좌에 앉아 있었으나 1994년, 나이 스물셋의 젊은 중위 야히아 자메의 쿠데타로 실각한다. 그런데 새롭게 감비아의 정권을 장악한 자메는 기인(奇人)이라 불릴만한 사람이었다.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헤비급 복서 출신이었다면 자메는 레슬링 선수 출신이었다. 축구광이기도 했던 그는 2005년 페루에서 열린 17세 이하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당시 감비아 축구팀은 파우라라는 도시에서 카타르와 예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파우라 공항에 비상이 걸렸다. 비행기 한 대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 착륙을 요청해 온 것이다. 공항 당국은 소방차

와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활주로를 비우고 갖은 수선을 피운 끝에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파우라 공항 관계자들은 잠시 후 눈을 크게 뜬다. 비행기에서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이들은 감비아 축구 팬들. 비상착륙한 기색이 전혀 아니었다. “연료 부족으로 비상 착륙하지 않았나요?” 공항 관계자가 묻자 감비아인 한 명이 쾌활하게 대답했다. “우리 대통령 명령이에요. 리마(페루 수도)를 거쳐 가면 카타르와의 경기를 못볼지 모르니 파우라에 비상착륙하라고 그랬어요.” 공항 관계자 입이 딱 벌어질 밖에. 하나 더 이 자메 대통령의 기행을 소개한다면 2007년에 있었던 ‘AIDS 치료제’ 소동을 들 수 있겠다. 그 해 어느 날, 자메 대통령은 감비아 주재 외교사절들을 불러 모았다.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다. 특유의 풍성한 흰색 가운 차림에 상시 들고 다니는 코란을 들고 입장한 자메는 실로 놀라운 발표를 한다. “약초와 바나나 합성 성분을 통해 AIDS 환자를 3일 만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비아 국내 의사들과 UN 요원들은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고 자메 대통령은 UN 직원들을 추방하고 의사들은 가둬 버렸다.

나이 스물셋에 권력을 쥔 자메는 1996년, 2001년,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리 당선돼 3선의 ‘꿈’을 이뤘다. 그래 봐야 나이 마흔도 안 된 젊은 독재자였다. 2011년 자메는 대통령 4선에 도전한다. 유력한 경쟁자는 우사이누 다보. 그러나 4선의 독재자에게 분열된 야당의 후보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거기에 부정선거는 덤이었다. 득표율 72%로 당선된 독재자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기염을 토한다. “알라가 나에게 감비아를 10억 년을 통치하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10억 년 통치를 호언하던 자메에게 다섯 번째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는다. 나는 무엇이 중요할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선언한 그는 감비아 통치는 자신과 신에게 달린 문제이며 대선 승리 후 자신의 승리에 누가 되는 어떠한 시위도 허용치 않겠다고 어깨에 힘을 주었다. 그의 장담에는 현실성이 있었다. 2016년 대선에서 자메의 상대는 아다마 바로우라는 사람이었다. 사업가 출신으로 2007년 총선에 통합민주당(UDP)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던 것 외에는 아무 정치적 이력이 없는 신예. 자메가 자신할 만했다. 그러나 바로우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통치, 모든 정치범 석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분열돼 있던 야당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번에는 자메를 끝장내자.”는 합의가 감비아 야당들 사이에 형성됐고 8개 정당이 바로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래도 자메 대통령은 신의 섭리를 주장하며 자신은 당선돼야 하고 당선된 뒤 불복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2016년 12월 1일, 마침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야당은 부정선거를 우려했다. 그만큼 자메 대통령의 그림자는 길고도 깊었다. 누구나 “내가 국민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다.”고 뺨대는 현직 대통령 자메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이변이 일어났다. 선출직 후보 경험조차 없는 야권 후보 아다마 바로우가 26만 3천 515표(45.54%)를 얻어 2만 2천 99표(36.66%)를 기록한 자메 대통령을 꺾은 것이다.

대이변이었다. 동시에 자메 대통령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수도 반줄 시민들은 거리에 몰려나와 환호했지만 자메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비상사태 하에서 수만 명이 인근국가 세네갈로 탈출했다. 그중에는 대통령 당선자 아다마 바로우도 끼어 있었다. 그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취임 선서를 해야 했다. 그래도 자메는 버텼지만 이제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15개국도 나섰다. 하이하지 않을 경우 군사 개입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야 자메는 공무니를 뺐다. 감비아의 국고와 자산을 빼돌린 채 해외 망명한 것이다.

귀국한 바로우 신임 대통령은 자신 있게 부르짖는다.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고난의 일부였다. 나는 안 좋은 일들이 이전 끝났다고 생각한다.” 어찌 바로우만이었을까. 감비아로서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바로우가 반줄 시내를 행진할 때 감비아 국민들은 환호하며 경적을 울리며 그 뒤를 따랐다. 감비아 독립 후 50년 가깝도록 처음으로 맞는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아다마 바로우)

바로우가 반줄 시내를 행진할 때 감비아 국민들은 환호하며 경적을 울리며 그 뒤를 따랐다. 감비아 독립 후 50년 가깝도록 처음으로 맞는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 PRODUCE LEADER

## 당신의 대표자에게 K-Voting하세요!

### 온라인 투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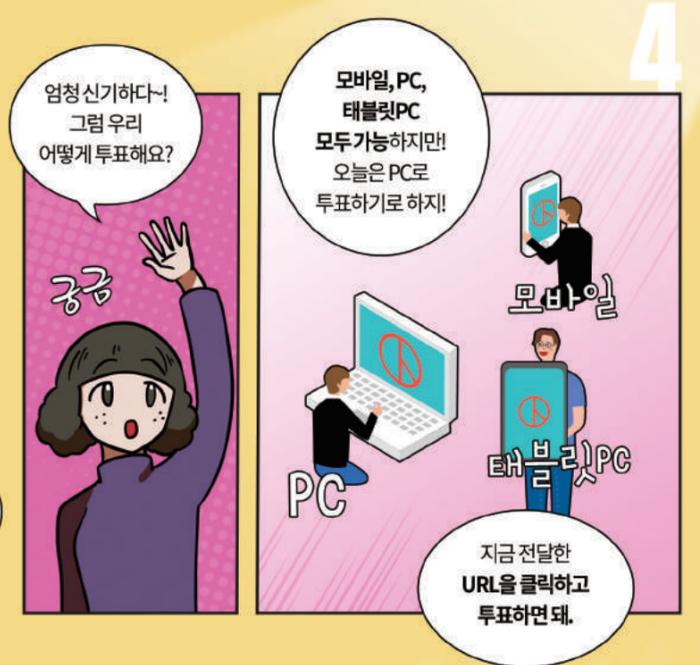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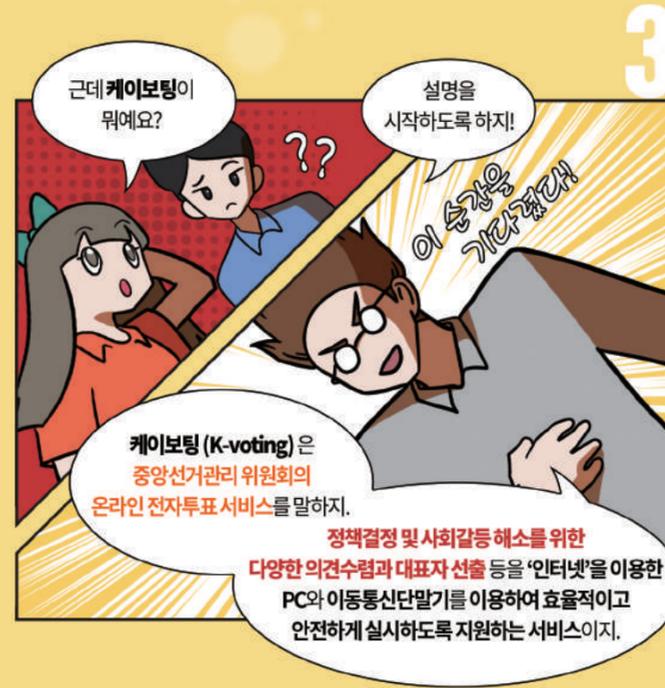


그림: 박슬기

생활 속 선거!  
이젠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케이보팅(K-Voting)하세요!





## 이곳에 가면 가족애가 쑥쑥 추석 가족여행지 3곳

민족 대명절 추석이 돌아왔다.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여 가족애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맘때 떠나는 가족여행은 그동안 바빠서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묘약이다. 전주에서는 가족끼리 고운 한복을 입고 한옥체험을, 괴산 산막이옛길에서는 도란도란 옛이야기를, 대구 근대골목에서 대한민국의 초기 역사를 보며 고마운 마음을 나누자.

### 한복 입은 인생사진,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옥이 고스란히 보존된 도심 한옥마을이다. 반세기가 지나면서 한옥마을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옥 체험과 전통음식 외에는 이렇다 할 체험거리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한복데이가 생겼다. 한복을 입은 체험자들은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겼다. 그 흔적들은 잊을 수 없는 여행 추억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장식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시극의 한 장면 같은 진풍경이 펼쳐진다. 양반집 규수마냥 고운 한복을 입은 처녀들과 조선시대 선비 뺨치는 총각들로 거리에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요즘은 엄마 아빠와 꼬맹이까지 한복을 세트로 갖춰 입고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이곳에 왔다면 한

복 인생사진을 남겨보자. 스타일리쉬한 한복을 갖춰 입었다면 마을 산보에 나서는 건 어떨까. 산보길에 꼭 방문할 곳은 경기전과 전통성당이다.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경기전은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를 일으킨 태조 이성계의 어진(국보 317호)을 봉안하기 위해 태종이 지었다. 경기전 맞은 편, 붉은색 벽돌로 지은 전통성당도 사진촬영 스팟이다. 천주교 순교지이기도 한 이 곳은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한옥마을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한옥마을의 중심거리인 경기로를 따라 곧장 걸어가면 오목대에 닿는다. 오목대는 1380년(우왕 6) 삼도순찰사 이성계가 황산에 출몰한 왜구를 토벌하고 승전 연회를 열었던 곳이다. 전주 한옥마을 전체를 조망하기에 좋아 전망대가 조성돼 있다. 육교를 건너 아가자기한 벽화가 그려진 지만벽화마을이다. 카페와 다양한 체험공간이 있어 연인들과 가족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문의** 전주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063-282-1330

### 호수 따라 이야기 보따리가 풍성, 괴산 산막이옛길



괴산에 가면 깊은 산중에 둘러싸인 산막이마을이 있다. 이곳은 모두 열가구가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다. 마을을 찾아가는 길을 산막이옛길이라 부른다. 한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을 걷기 코스로 정비하여 2011년에 개통했다. 거리는 4km에 불과하지만 길목마다 아가자기한 볼거리가 넘쳐나 찾는 이들이 많다. 특히 호수와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이 산막이 옛길의 백미이다. 목책 데크와 잘 닦아 놓은 길에 휴식공간이 많아 가족이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에도 그만이다.

산막이옛길에는 26가지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다. 그 중에서 풍경이 좋은 곳은 남매바위 위에 설치된 정자다. 정자에서

면 비학봉, 군자산, 옥녀봉이 아득하다. 누각에서 보는 풍광이 세상 시름을 잊을 만큼 빼어나다는 망세루를 지나면 산막이옛길에서 가장 자연미가 돋보인다는 호수전망대에 이른다.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는 두둥실 구름이 내려앉았고, 소나무와 촘촘던 산들바람도 쉬어간다. 40m 절벽 위에 설치된 고공전망대는 연인이나 부부가 기념사진을 찍는 스팟으로 인기가 높다.

이색적인 볼거리는 1968년까지 호랑이(표범)가 실제로 드니다며 살았던 호랑이굴, 여름철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를 피하거나 더위에 지칠 때 잠시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지는 여우비 바위굴, 괴산을 상징하는 메산(山)자 형상을 닮은 괴산바위 등이 있다.

**주소**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546-1 / **문의** 산막이옛길 주차장 사무실 043-832-3527, 괴산군청 관광팀 043-830-3451~3

전통이 살아 있는 전주와 자연의 품에서 숨을 얻는 괴산, 도심이어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대구까지 살펴봤다. 여행하기 좋은 시절, 어디든 괜찮다. 온 가족이 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이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이다.

### 골목여행의 성지, 대구 근대골목



대구 중구에 위치한 오래된 골목이 '2013 아시아 도시 경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 한국관광공사 가 뽑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00선'에 선정되었다. 이 골목은 대구를 대표하는 여행 코스로서 구간 거리는 1.6km에 지나지 않지만 근대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시간여행을 떠났듯하다. 골목여행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청라언덕'에서 시작한다. '청라'란 푸른 담쟁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곳에 담쟁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라언덕에 세워진 선교사 가옥은 모두 세 채. 어디선가 톨스

여가 친구 허클베리 핀을 부르며 뛰어나올 것 같은 이국적인 모습이 다. 청라언덕 제일교회 신관을 따라 내려가는 계단은 '3.1 만세운동길'이라 부른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계산성당 정문 왼쪽 길을 따라 골목길로 접어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한 저항시인 이상화 고택이 나온다.

현대백화점 뒷골목을 따라 걸다보면 소설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주인공 김남이와 어머니 동상이 옛 시간에 멈춰 서 있다. 이 일대를 진골목이라 부르는데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다. 대구 대봉동 방천시장에 가면 김광석길이 있다. 가수 김광석이 타고 지난 곳으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찾아볼만하다. 김광석의 노래를 소재로한 벽화가 이색적이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67  
**문의** 대구시청 관광과 053-803-0114

**임운석** 여행작가  
여유만만, 한국기행 등 방송 출연  
내가 선택한 최고의 여행, 최고대 섬 여행 등 여행서 집필

# 알아봤다!

# 정치후원금!

1

**원영** 언니! 안쓰던 신용카드 포인트 있으면 정치후원금 기부 좀 해!  
**은비** 얼, 켈얼? 그걸 왜 내?  
**원영** 왜냐면 우리는 민주시민이니까?  
**은비** 와, 세상에서 너랑 제일 안 어울리는 단어다!  
**원영** 어차피 소멸될 포인트인데 기부하면 얼~마나 좋게요?  
**은비** 정치후원금이 뭘데 그래?

2

## 기탁금과 후원금, 뭐가 다를까?

**기탁금**  
 기탁자 → 기탁 수탁증고부 → 선거관리위원회 → 배분지급 → 정당

정치자금법 정당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5

## 정치후원금 기부, 어떻게 하나요?

**기탁금·후원금 모두 기부 가능**

1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https://www.give.go.kr>) 및 모바일에서 기부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6

**기탁금·후원금 모두 기부 가능**

2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기부  
 기탁금의 경우 중앙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계좌이체로 직접 기부  
 후원금의 경우 기부하고자 하는 정당·정치인의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

**기탁금만 기부 가능**

3 신용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

츄만곡출시간에 기부 완료~!

3

## 기탁금과 후원금, 뭐가 다를까?

**후원금**  
 기부자 (후원인) → 직접후원 후원금 정수증발급 → 후원회 → 정당·정치인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해요.

4

## 정치후원금, 왜 필요한가요?

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정당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 정치후원금 없이 이를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 등의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 불법적인 자금 수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이 있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겠지요?

7

## 정치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 공제

8

정치인에는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국민들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는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 정치후원금으로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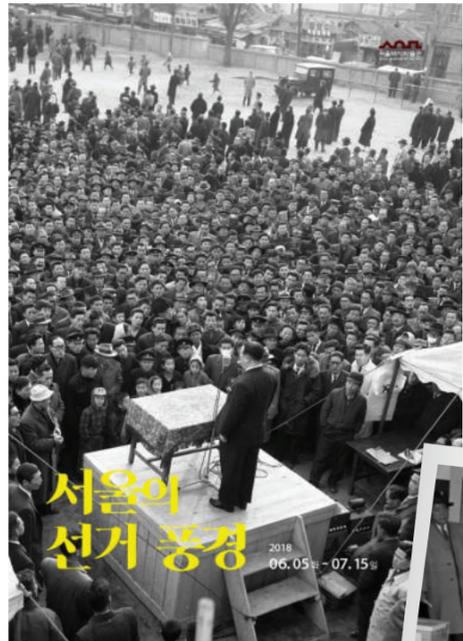
깨끗한 정치, 부탁해요~

정치후원 꿀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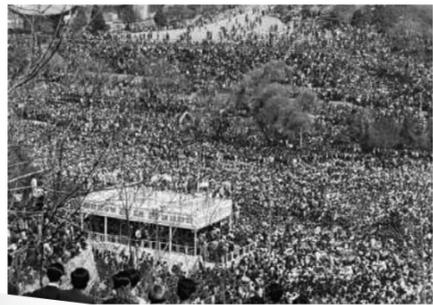
# 〈서울의 선거 풍경〉展,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역사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제조



서울의 선거 풍경  
2018 06.05 - 07.15



전시는 「지방자치법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제조 문으로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주민의 자치로 그 지역의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공포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6.25 전쟁으로 1952년이 되어서야 시행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선거와 대통령 임명으로 번갈아 개정하는 등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유난히 골목이 많았던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한 지방자치, 수난 속에 그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첫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져 김상돈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그러나 곧 벌어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회귀하였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되며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습니다.

80년대 말 민주화 바람으로 지방자치도 부활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로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하였죠. 1995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죠.

〈서울의 선거 풍경〉 전시는 역사 속 다양한 선거 관련 사진들을 통해 과거의 그 날로 오늘을 투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난히 골목이 많았던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한 지방자치, 수난 속에 그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네 민주주의를 열어가야 할 주체도 시민입니다. 동네 민주주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박지수  
제16기 선거명예기자단

지난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최종투표율은 60.2%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투표율 68.4%) 이후 지방선거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전투표율도 20.14%로 지난 지방선거(사전투표율 11.49%)보다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죠. 대한민국 대표 예능인들이 함께한 지방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 '613 투표하고웃자' 영상은 선거 당일까지 6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투표참여 독려활동

은 유명인사를 포함, 단체, 유권자 개개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6.13 지방선거를 기념하고 투표 독려하기 위하여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의 선거 풍경〉展은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서 열렸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내용은 알차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의 골목과 함께 한 지방선거의 역사 속에서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역사 속 다양한 선거 풍경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선거비용이 왜 그럴까



**3**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 대상이 아니며, 10% 미만의 유효득표수를 기록한 후보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득표수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 → 선거비용의 **50%** 보전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 → 선거비용의 **100%** 보전

**'선거비용보전제도'**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선거비용의 회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를 통해 선거비용보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4**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면 돼요!**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 그 청구 내역을 정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게 되죠.



**5**

**여기서 잠깐!**

당선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후보자 매수·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죠?



선거 따라잡기

그림 : 박슬기

선거에 관한 정보, 유권자와 소통하는

# 한국선거방송



KT Olleh tv - **273번** T broad - **205번**

※ 한국선거방송은 모바일(www.etv.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블링블링**  
이런 선거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웹툰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쏙쏙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ello**  
오 광복절 관련 현수막도 걸 수가 있었군요~!  
애매모호했는데 선거법 알리미 덕분에  
새로운 정보 얻어갑니다.



**별이람**  
옛날 예전 사진부터 우와~  
민주선거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크리슈나**  
선거가 끝나고 일정 이상 표를  
받으면 선거 때 쓴 비용을 약간  
돌려받다고 들긴 했는데  
덕분에 자세히 안 것 같네요. 이렇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면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더갤러리**  
또 놀러 왔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늘  
감사드려요~  
잘 보고 갑니다~♥



**syworld92**  
선거 콘텐츠 매일 보고 있는데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어서  
그런지 선거에 관심도 많이 생기고,  
선거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greendayoon**  
더욱 투명하게 믿을 수 있는  
선거가 되겠네요.



**명삼**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죠.  
나의 한 표로 인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파이팅!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의 주요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yuio5034**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종종 블로그 들려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고 있어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군요.  
새로운 사실 알려줍니다~**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모바일로 만나는  
SNS 매거진 No.26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